

6. 교내 합창 공연을 보고 메모한 내용에 착안하여 '학교 신문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창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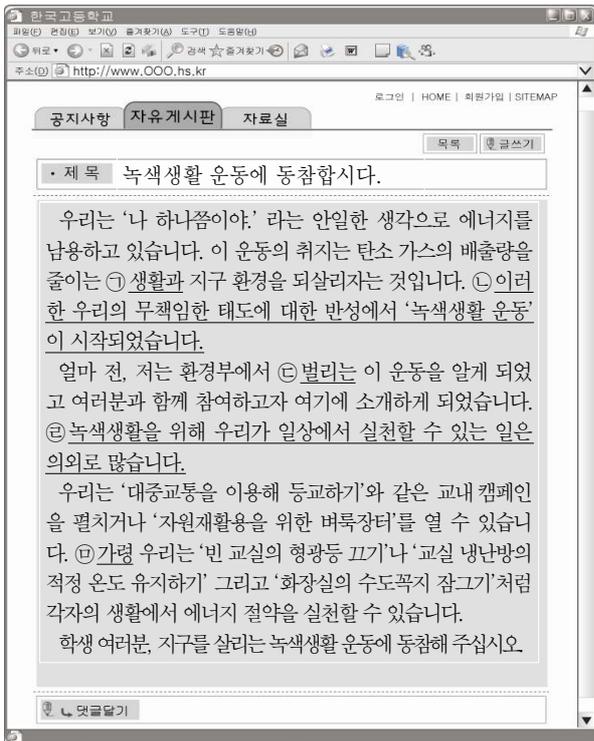


【메모】

- 반주자는 합창단과 호흡을 맞추어야 함.
- 합창단원은 악보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야 함.
- 합창단원은 자신이 맡은 음역을 충실히 소화해야 함.
- 합창단원은 서로 간에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어야 함.
- 지휘자는 곡을 해석하여 노래의 강약을 조절해야 함.

- ① 기사 작성의 원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 ② 편집 과정에서 편집반원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③ 취재나 기사 작성 등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 ④ 기사거리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
- ⑤ 편집장은 작성할 기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논조의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

[7~8]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에 '녹색생활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쓴 글이다. 7번과 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제목: 녹색생활 운동에 동참합시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에너지를 낭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취지는 탄소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 생활과 지구 환경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 이러한 우리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반성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환경부에서 ㉢ 별리는 이 운동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고자 여기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 녹색생활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교하기'와 같은 교내 캠페인을 펼치거나 '자원재활용을 위한 베틀장터'를 열 수 있습니다. ㉤ 가령 우리는 '빈 교실의 형광등 끄기'나 '교실 냉난방의 적정 온도 유지하기' 그리고 '화장실의 수도꼭지 잠그기'처럼 각자의 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구를 살리는 녹색생활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7.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생활을 실천하여'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바로 앞의 문장과 맞바뀌야겠어.
- ③ ㉢은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별이는'으로 바뀌어야겠어.
- ④ ㉣은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겠어.
- ⑤ ㉤은 앞뒤 문장의 연결을 고려하여 '또한'으로 바뀌어야겠어.

8. 위 글을 고쳐 쓴 후, '녹색생활 운동'을 위한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 보기 >
- 의인화와 대구를 활용할 것.
 -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의 실천 사례를 활용할 것.

- ① 지구를 지켜 주는 행복한 습관
버스 타기로 지구가 튼튼해져요.
- ② 수도꼭지 잠그면 지구가 미소 짓고
냉방 온도 낮추면 지구가 울상 짓죠.
- ③ 빈 교실 형광등 켜면 교실을 밝히지만
빈 교실 형광등 끄면 환경을 지키지요.
- ④ 쓰던 물건 다시 쓰면 지구가 깨끗해져요.
지구가 초록 옷 입게 도와주세요.
- ⑤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탄소 가스 줄이기
우리의 미래를 밝혀 줄 등불입니다.

9. <보기>는 '행정 용어의 개선'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 인터뷰

1. "행정 기관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해도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 당황한 적이 종종 있어요. 편한 우리말을 놔두고 왜 어려운 용어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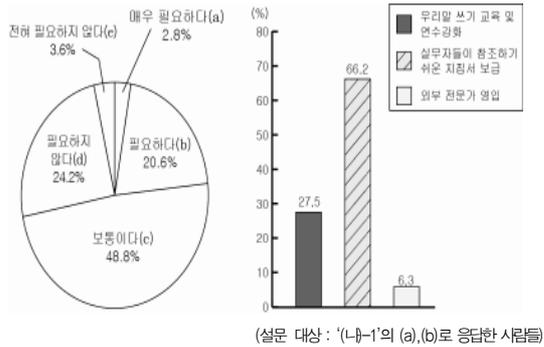
- 시민 김 모 씨

2. "순화된 용어 사용은 강제가 아닌 협조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당 기관 실무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 ○○ 연구원 팀장

(나) 통계 자료 (행정 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 조사)

1. 행정 용어 순화의 필요성 2. 행정 용어 개선을 위한 해결 방법



(다) 신문 기사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려운 행정 용어 때문에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이 1년에 약 17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어려운 행정 용어를 찾습니다.' 코너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수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 ○○ 신문

- ① (가)-1과 (나)-1을 활용하여, 행정 기관의 실무자가 행정 용어 때문에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행정 용어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② (가)-1과 (나)-2를 활용하여, 행정 기관 실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행정 용어가 개선되지 않는 실태를 제시한다.
- ③ (가)-2와 (나)-1을 활용하여, 행정 기관 실무자의 개선 의지를 높이면 행정 용어의 순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④ (가)-2와 (다)를 활용하여, 행정 기관 실무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행정 용어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행정 용어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⑤ (나)-2와 (다)를 활용하여, 행정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 실무자와 시민,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10. 다음을 보고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검토 내용과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이란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학생들과 1:1 관계를 유지하며 무료로 학업을 도와주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봉사 활동을 의미한다.
-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은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 △△ 신문 기사 발췌

〈 보기 〉

I. 실태 :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참여율 저조

II. 활성화의 필요성

1. 참여 학생에게 자기 성장의 계기 마련
2.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도움 제공 ㉠

III.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과정 ㉡

1.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2.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공간 및 진행 예산 부족
3.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프로그램 미비

IV. 해결 방안 ㉢

1. 각종 매체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간 및 예산 지원
3.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

V.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촉구 ... ㉤

검토 내용	수정 방안
①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수정해야 함.	'교우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으로 바꾼다.
② ㉡은 하위 항목들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수정해야 함.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바꾼다.
③ ㉢은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보완해야 함.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④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정해야 함.	II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함.	'청소년 멘토링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 촉구'로 바꾼다.

11.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대상 어휘]

거의, 대체로, 대부분

[분석 방법]

- 주어진 문장의 { }에 있는 단어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어 앞에 *를 표시한다.
-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문장이 성립되는 단어들의 의미 특성을 파악한다.

[1차 분석 결과]

- 그는 몸살이 나서 {거의/ *대체로/ *대부분} 사흘을 앓았다.
- 그 소년은 여행을 {거의/ *대체로/ *대부분} 포기했다.
- 운동장은 {거의/ *대체로/ 대부분} 눈으로 덮여 있다.
- 이 학교의 { *거의/ *대체로/ 대부분} 학생들은 매일 운동한다.
- 그의 소설들은 { *거의/ 대체로/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니?

- ㄱ을 보면 '거의'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 앞에 쓰여 그 한도에 매우 가까운 정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ㄴ을 보면 '거의'는 주체의 심리가 서술어 '포기했다'의 의미에 가까워짐을 나타낼 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ㄷ을 보면 '거의'와 '대부분'은 후행하는 대상이 공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ㄹ을 보면 '대부분'은 후행하는 대상의 수효가 전체량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많음을 나타낼 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ㅁ을 보면 '대부분'은 '대체로'와는 달리 '요점만 말해서'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용언의 활용형과 준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간	어미	활용형	준말
ㄱ. 흔하-	+ -지	→ 흔하지	흔치
ㄴ. 섭섭하-	+ -지	→ 섭섭하지	섭섭지
ㄷ. 이러하-	+ -지	→ 이러하지	이렇지
ㄹ. 삼가-	+ -지	→ 삼가지	×

- ㄱ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의 'ㅏ'가 탈락하고 'ㅎ'이 어미의 첫소리와 결합한 경우에 해당하군.
- ㄴ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가 탈락한 경우에 해당하군.
- ㄷ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의 'ㅏ'가 탈락하고 'ㅎ'이 앞 음절 끝소리로 붙은 경우이군.
- ㄱ과 ㄴ의 준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미의 첫소리와 관련이 깊겠군.
- ㄱ~ㄷ과 달리 ㄹ에 준말이 없는 것은 어간에 '하'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용악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꼬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앓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 건너 벌판엔
나의 젊은 넋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 뿐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 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못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주앉은
나는 울 줄 몰라 외롭다

* 길이 :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 강원도치 : 강원도 사람

(나) 산 이형기

산은 조용히 비에 젖고 있다.
밀도 끝도 없이 내리는 가을비
가을비 속에 진좌한 무계를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한다.
표정은 뿌연 시야에 가리우고
다만 ㉠ 윤곽만을 드러낸 산
천 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오후 한때 가을비에 젖는다.
이 심연 같은 적막에 싸여
조는 등 마는 등
아마도 반쯤 눈을 감고

방심무한 비에 젖는 산
 그 옛날의 ㉠ 격노의 기억은 간 데 없다.
 깎아지른 절벽도 앙상한 바위도
 오직 한 가닥
 완만한 곡선에 눌러 버린 채
 어찌면 눈물 어린 눈으로 보듯
 가을비 속에 어룡진 윤곽
 아 아 그러나 지울 수 없다.

[A]

(다) 마음의 수수밭

천양희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잎 몇장 더 없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눈독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 맑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B]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대상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는 ‘두만강’을 배경으로 일제 강점 하의 민족 현실과 만주 등지로 떠나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밤기차로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이때 화자는 두만강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역사에 대한 긍정적 자각과 아울러 떠나는 자의 죄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제1연에서 ‘나’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고 한 것은 현실에 대해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볼 수 있다.
- ② 제2연에서 강물이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3연에서 ‘강 건너 별판’은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4연에서 ‘목마르고’, ‘거칠다’는 일제 강점 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제5연에서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는 고향을 떠나 먼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색채어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화자를 직접 드러내어 화자 자신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에 젖어 뿌옇게 보이는 산으로 화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 ② ㉡: ‘완만한 곡선’이 되기 전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였던 ‘산’의 지난날을 의미하고 있다.
- ③ ㉢: ‘보리밭’과 겹치어 마음속에 연상된 것으로 화자의 힘들었던 과거를 함축하고 있다.
- ④ ㉣: ‘하늘’과 ‘솔바람’에 의해 제정신이 든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
- ⑤ ㉣: ‘절벽’에 오르고 ‘산’을 받아들이면서 어둡고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의미하고 있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 강한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동아시아 사회의 사상적 기반인 유학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와 유학 사상,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진(先秦)유학*의 경전에 나타난, 유학자들이 인간을 파악하는 기본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關係體)로 파악했다. 이들은 인간을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아,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을 사회관계 속의 '역할·의무·배려의 복합체'로 보는 입장으로 이어졌고, 유학자들은 개인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회 행위의 원동력이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행위의 최종 목표를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다음으로 유학자들은 인간을 능동적 주체자(主體者)로 파악했다. 이들은 인간 스스로가 도덕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를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유학자들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도덕 인식과 실천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유학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감정을 덕에 맞추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유학자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통제 대상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찾으며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학자들은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可能體)로 파악했다. 유학자들은 인간을 누구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이 덕을 사회생활에 실천하여 군자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 보고 있다. 또한 유학자들은 개체로서의 인간을 '과정적이고 가변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유학자들이 자기 수련을 통해 도달하려는 최종 목표인 성덕(成德)은 자기 혼자만 도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도를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타인의 성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사회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선진유학 :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까지의 원시적 확립기의 유학.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이 중심이 됨.

17. 위 글에 나타난 유학자들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나 군자가 될 수 있다.
- ② 인간의 존재 의의는 사회관계와 무관한 것이다.
- ③ 인간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덕을 이룰 수 있다.
- ④ 인간의 사회 행위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한 것이다.
- ⑤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도덕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18. 위 글의 '유학자'가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에게 제기했을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인들 각자가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라고 보아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독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이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추구하는 일을 중시하며 개인은 안정적이고도 고정된 속성을 갖춘 실체라고 인식하였다.

- ① 개인들 각자가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요?
- ② 인간은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욕망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 ③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역할보다 개인에 대한 사회의 의무와 역할을 소홀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④ 인간은 능동적 존재이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요?
- 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인과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요?

19.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ㄱ. 소인은 모든 일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만, 군자는 모든 일의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한다. - 『논어(論語)』
 ㄴ. 인(仁)의 핵심은 아버이를 모시는 것이고, 의(義)의 핵심은 형(兄)을 따르는 것이며, 지(智)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이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예(禮)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조절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 『맹자(孟子)』

- ① ㄱ에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군자'의 모습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
- ②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ㄱ의 '군자'는 '소인'이 스스로에게서 책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
- ③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ㄱ의 '소인'도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어.
- ④ ㄴ에서 '인(仁)', '의(義)'의 핵심을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찾는 것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ㄴ에서 '예(禮)'의 핵심이 '인(仁)', '의(義)'를 조절하고 꾸미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도덕의 실천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능동적 주체자'로 보는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20.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오늘은 끝장을 보고 말겠다고 다짐하였다.
- ② 그들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 ③ 아내는 어머니께서 주무실 자리를 보고 있었다.
- ④ 결국은 손해를 보고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 ⑤ 환자의 상태를 좀 더 보고 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합니다.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에서 화성이나 멜로디가 하나의 음 또는 하나의 화음을 중심으로 일정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성(調性)이라 한다. 조성을 중심으로 한 음악은 서양음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음악가의 열망이 무조(無調) 음악을 탄생시켰다.

무조 음악에서는 한 옥타브 안의 12음 각각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 음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무조 음악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조성이 주는 체계성은 잃게 되었다. 악곡의 형식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가 흔들린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조 음악이 지닌 자유로움에 체계성을 더하고자 고민한 작곡가 쇤베르크는 ㉠ 12음 기법이라는 독창적인 작곡 기법을 만들어 냈다.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은 12음을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기본 음렬(音列)에 이를 '전위', '역행', '역행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세 가지 음렬을 더해 악곡을 창작하는 체계적인 작곡 기법이다.

기본 음렬은 작곡가가 곡을 만들 때 12음을 자신의 의도대로 처음 배열한 음렬을 말한다. 기본 음렬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12개의 서로 다른 음을 한 음의 반복도 없이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 기본 음렬을 구성할 때는 중요한 음이나 중심이 되는 화음 없이 12음 각각에 동등한 자격을 ㉡ 주어야 하며, 구성한 후에는 배열된 음들의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림]

12음 기법은 기본 음렬을 한 번 파생한 '역행'과 '전위', 전위한 음렬을 다시 역행하여 배열한 '역행 전위'의 방법으로 음렬을 구성한다. 역행은 기본 음렬의 12음을 거꾸로 배열하는 방법인데 [그림]의 '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기본 음렬을 '도-도#-레#-...-라-라#-시'로 정했을 때, 이것을 거꾸로 '시-라#-라-...-레#-도#-도'로 배열하는 것이다. 전위는 기본 음렬 속 첫째 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변화하는 음의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이를테면 기본 음렬 속 첫째 음이 둘째 음, 셋째 음으로 이동할 때 '도-도#-레#'으로 1도씩 상향하여 이동했다면 전위 음렬에서는 [그림]의 출발점 '도'에서 '도-시-라#'으로 1도씩 하향하여 배열되는 방식이다. 전위의 출발점은 기본 음렬의 첫째 음과 같지만 둘째 음부터는 기본 음렬의 음의 진행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배열된다. 마지막으로 역행 전위는 기본 음렬을 전위한 후 그 음렬을 다시 역행시켜 배열하는 방법이다.

21.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발생 배경을 바탕으로 대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대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새로운 이론을 통해 대상의 발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22. ㉠으로 하나의 작품을 작곡할 때,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2음 모두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 ② 기본 음렬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 ③ 조성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 음렬을 구성해야 한다.
- ④ 기본 음렬을 상황에 따라 다시 설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⑤ 기본 음렬과 기본 음렬을 파생한 음렬을 활용해야 한다.

23. <보기>는 '12음 기법'으로 기본 음렬을 배열한 후 파생시킨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A : 기본 음렬

* ♯ (제자리표) : 악보에서 임시표인 #, b 등의 효력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리는 표

- ① B는 A를 역행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것이다.
- ② C는 A를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것이다.
- ③ D는 C를 역행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것이다.
- ④ B와 C는 A를 각각 한 번씩 파생시킨 것이다.
- ⑤ C와 D는 B를 각각 한 번씩 파생시킨 것이다.

24.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부여(附與)해야
- ② 수여(授與)해야
- ③ 위임(委任)해야
- ④ 전가(轉嫁)해야
- ⑤ 제시(提示)해야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박경사의 아버지는 일본의 밀정이었다고 동료들이 증언하여 배신자로 낙인찍힌다. 박경사는 경찰이 되어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오도민을 찾아간다. 그리고 오도민을 통해 김광모 의원을 알게 되는데, 김광모 의원은 박경사에게 자신의 정적(政敵)이자 독립투사로 알려진 이종철이 박경사의 아버지를 모함한 인물이라고 말해준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박경사는 험쩍거렸다. 그러나 김광모 의원은 서두르지 않았다.

㉠ 파이프에 입답배를 담아 누르며 그가 말했다.

-자네 마음먹기에 달렸네. 그놈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인 다음 자네 부친이 뒤집어쓴 누명을 벗기는 걸세.

-어떻게, 무슨 증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 방법이 있네. 우선 모든 일은 자네 부친과 죽마고우였던 오도민 씨가 다 알아서 도와 줄 걸세. 이종철이 그놈이 자네 부친을 모함했듯 우리도 그놈의 허상을 깨뜨리고 그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야. 그 일의 중인이 바로 자네가 되어야 하네. 자네 부친을 위해서 자네가 나설 때가 온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도 좋아. 오히려 모르는 게 좋을 걸세. 오도민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 내 팔뚝 알아들었나?

박경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김광모 의원과 자신의 후견인으로 행세하는 오도민 씨의 속셈이 한번에 석연하게 잡혀들자 가슴이 떨렸다. 천 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쳐지는 낭패감이 엄습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허망감이었다.

그러나 문득 박경사는 마음 한편에서 서서히 고개를 쳐드는 유희의 손을 보았다.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확신하고 있는 아버지의 실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식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그것을 또 다른 누가 할 것인가. 그는 마음 밑바닥에 어떤 기꺼움 같은 게 별렁별렁 숨쉬기 시작한 걸 알고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김광모 의원의 말대로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억울한 입장일는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억울함을 자식이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쳐 아버지의 결백을 주장한다-그렇게 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것은 또 가능했다. 김광모 의원과 오도민 씨와..... 그 순간 박경사는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버지 얼굴 같기도 했다. 열 살 때 밤 눈을 떴을 때 등잔불 곁에 앉아 있던 아버지의 얼굴에다가 방금 전 머리에 그려진 웃는 얼굴을 겹쳐 보았다. 그러나 박경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의 치욕이었다. 크고 옳은 것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런 웃음을 웃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못박아 생각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실상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만들어진 아버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다.

-내 제의에 대한 거절의 뜻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일은 저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사는 김의원의 얼굴에 불쾌한 그늘이 지는 걸 역력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곧 낭패스러운 얼굴로 바뀌어 갔다.

박경사의 가슴에 한가닥 두려움 같은 게 끼어들었다. 그러나 ㉢ 그 두려움보다 몇배의 큰 희열이 어금니에 지그시 씹히고 있음을 그는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자네 김의원께서 제안한 걸 거절했다며? 방금 서울서 전화가 왔네. -거절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애긴가, 자네 부친의 누명을 벗기는 데 자네가 협조할 수 없다는 건?

박경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자네 출세하기 싫다는 거군.

-저는 지금 이대호가 좋습니다.

㉣ -지금 이대호는 누구 덕택인데 그런 소릴 하나?

박경사는 안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내 놓았다.

-김의원께서 여비나 하라고 주셨는데 아무래도 봉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거 털 떨어졌군.

오도민 씨는 박경사가 내놓은 봉투의 내용을 살펴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이 사람아, 이런 건 남한테 내보이는 게 아냐. 자네 부인한테나 가지고 가 자랑을 할 것이지.

-오사장님께서 맡았다가 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가질 일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넣어 두게.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보다 바로 자네 자신을 위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일하면 되는 거야. 기회란 그렇게 흔한 게 아닐세. 자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네.

오도민 씨는 자기를 위해서 일해 달라는 얘기만은 하지 않았다. 죽마고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의 얼굴은 결코 밝지 못했다. 박경사가 끝내 그 봉투를 놓고 일어섰던 것이다. 그가 앉은 채 방을 나서서 박경사한테 한마디 던졌다.

㉤ -자네 역시 대단한 사람이군. 이까지 걸 먹고 먹었다는 소린 듣기 싫다 그 애긴가?

[A] 외등 주위에 몰려든 날벌레들의 어지러운 난무는 여전했다. 더 많은 날벌레들이 모여들어 서로 엉겨 돌았다. 좀전까지 그 큰 몸체를 사정없이 부딪쳐 가며 날뛰던 나방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지쳐 떨어졌겠지. 그 나방처럼 사는 게 굵고 짧게 사는 걸까. 박경사는 혼자 웃었다. 그 나방처럼 격렬한 삶을 정말 잠시라도 누리고 싶다는 충동이 불쑥 치민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가 누린 그 일생은 저 나방과 같이 짧고 격렬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전상국, 「외등(外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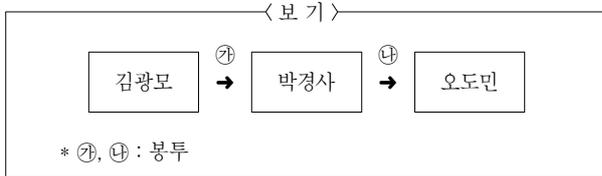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과거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장면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해 사건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 :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 :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인물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④ ㉣ : 상대방의 태도에 불쾌해하며 힐난하고 있다.
- ⑤ ㉤ : 상대방을 비꼬는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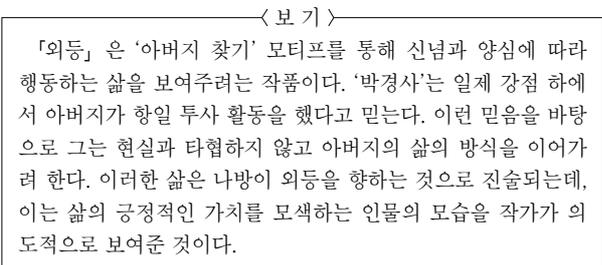
27. '봉투'의 전달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②에는 '박경사'를 회유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 ② ④를 전달하는 행위에는 '박경사'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한 사람의 웃는 얼굴'은 ②를 되돌려주려는 '박경사'의 결심과 관련이 있다.
- ④ ②와 ④는 인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 ⑤ ②는 인물 간의 타협을 이끌어 내고, ④는 인물 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28. <보기>를 참조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박경사는 '나방'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② '외등'은 아버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삶의 목표라 볼 수 있다.
- ③ 부정한 방법을 거부하는 박경사는 '외등'을 향하는 '나방'으로 볼 수 있다.
- ④ 지쳐 떨어진 '나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실망감으로 볼 수 있다.
- ⑤ 아버지의 삶에 대한 박경사의 믿음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에게 '외등'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질(脂質)을 대표하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산은 탄소 사슬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갖는데, 탄소 사슬 내의 탄소와 탄소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한다.

(나) 포화지방산에서 나타나는 탄소 결합 형태는 연결된 탄소끼리 모두 단일 결합하는 모습을 띤다. 이때 각각의 탄소에는 수소가 두 개씩 결합한다. 이 결합 형태는 지방산 분자의 모양을 일자형으로 만들어 이웃하는 지방산 분자들이 조밀하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분자 간 인력이 높아 지방산 분자들이 단단하게 뭉치게 된다. 이 인력을 느슨하게 만들려면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지방산을 함유한 지방은 녹는점이 높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방산 분자에는 탄소 사슬에 수소가 충분히 결합되어, 수소가 분자 내에 포화되어 있으므로 포화지방산이라 부르며, 이것이 들어있는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한다.

(다) 불포화지방산에서 나타나는 탄소 결합 형태는 연결된 탄소들끼리 단일 결합하는 가운데 일부의 탄소 쌍에서 이중 결합하는 모습을 띤다. 이때 이중 결합하는 탄소 쌍의 탄소에는 단일 결합한 탄소들과 달리 수소가 하나씩만 결합한다. 자연 상태의 불포화지방산 대부분은 이중 결합 탄소 쌍에 있는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지방산 분자는 탄소 이중 결합이 나타나는 지점에서 구부러지는 모양이 나타난다. 이중 결합이 여러 개이면 구부러짐 현상도 여러 개 생기는데, 이러한 모양 때문에 이웃하는 지방산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멀게 연결되어 분자 간의 인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은 녹는점이 낮아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탄소 이중 결합 수가 많을수록 녹는점은 낮아진다. 그리고 이 지방산 분자는 탄소 이중 결합 때문에 분자 내에 수소가 불포화되어 있으므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며, 이 지방산을 포함한 지방을 불포화지방이라고 한다.

(라) 포화지방은 체내의 장기 주변에 쌓여 장기를 보호하고 체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에너지로 전환되어 몸에 열량을 내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이 지방이 저밀도 단백질과 결합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부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 내부의 압력을 높여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 지방과 같은 동물성 지방, 팜유와 코코넛 유, ㉠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표적인 ㉡ 포화지방으로 이것이 들어 있는 음식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피하 및 장기 내부에 누적되어 비만을 일으킨다.

(마) 불포화지방은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지방은 세포막의 투과율을 높여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이 지방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입자들을 녹임으로써 혈액의 순환이 잘 되도록 돕는다. 아울러 이것은 뇌와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과 학습 능력, 시각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고기 기름, 올리브기름과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 땅콩 같은 견과류의 지방이 불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성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포화지방은 혈관 벽의 콜레스테롤 입자들을 녹인다.
- ③ 포화지방은 체내의 장기 주변에서 장기를 보호한다.
- ④ 불포화지방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돕는다.
- ⑤ 중성지방은 함유한 지방산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뉜다.

나는 그때 감사의 부관이 되어 멀리 있었으므로 그런 소문만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듬해 봄에 무릉촌 집이 완성되어 그 한 쌍의 거위를 데려다 놓았다. 그런데 두 마리가 수컷이었다. 깨끗한 깃털은 티끌 하나 묻지 않았고, 이놈이 울면 저놈이 따라서 우는 것이 마치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고, 물을 마셔도 함께 마시고 모이를 쪼아 먹어도 함께 먹었다. 또 그놈들이 마당을 빙빙 돌며 춤추듯 뛰어다니는 모양이 마치 서로를 위로해 주는 듯했다.

날마다 그놈들과 노는 것이 하나의 재미가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 해 시월 열나흘 날 밤에 그 중 한 마리가 죽어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거위 우리를 살펴보니 살아 있는 놈이 죽은 놈을 품고서 날개를 치며 슬피 울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치니 보는 사람마다 불쌍하고 안타까워 한숨을 지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죽은 놈을 가져가자, 산 놈은 바로 일어나 이리저리 배회하기 시작했다. 원망 어린 소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죽은 놈을 찾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거위를 보며 생각했다. 저 거위는 하찮은 미물인데도 그 주인을 사모하는 정이 이처럼 충성스러웠고,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이처럼 의로우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보기에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팔기도 하고 자신까지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열에 다섯도 더 되는데, 하물며 나라에 충성하는 이는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천지 사이의 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저 딱딱한 미물인 거위는 군자의 지조를 지녔고, 신령스럽다는 인간은 도리어 미물만도 못하니, 그렇다면 사람의 옷을 입고도 말이나 소처럼 행동하는 그런 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반대로 깃털로 몸을 감쌌지만 어질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짐승을 그냥 미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거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돌려서 너와 같은 성실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고자 하나, 그렇게 되지를 않는구나. 그러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까닭으로 의로운 거위의 이야기를 적어서 오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세붕, 「의아기(義鵝記)」

3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 ②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④ 속세를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의 심리적 고뇌가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화자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은 ㉠과 달리 화자가 앞으로 머물고자 하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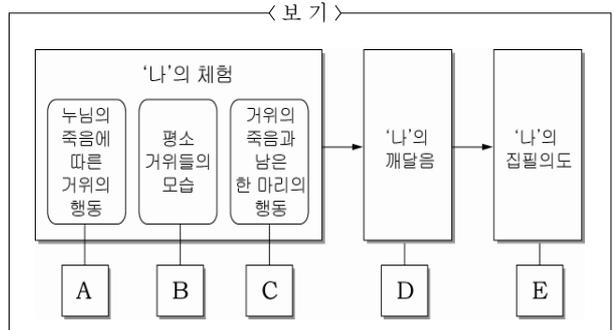
35.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 어른'이 '명경'은 값을 주고 닭으면서도, 값없이도 닭을 '명덕'은 닭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들이 '명경'과 '명덕'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군.
- ② '아이 어른'이 '명덕'을 닭을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이 어른'은 '한길'을 오도가지도 하지 않는 '행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군.
- ③ '한길'을 넓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길'은 '행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임을 드러낸 것이군.
- ④ '구인산'의 '술'로 만든 배로 '행인'을 건네려 한 것을 보니 '명덕'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군.
- ⑤ '모르도다, 아닌 게오, 버렸도다'와 같이 부정적인 서술어로 끝맺은 것은 현실적 삶에 엄매이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려 함이군.

36.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여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다.
- ④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비유를 활용하여 경계하려는 세상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37.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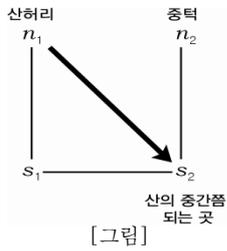


- ① '나'는 A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거위들의 신의 있는 모습을 C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② '나'는 B에서 거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여 이를 C에서 인간의 행동에 적용시키고 있다.
- ③ A~C에서 D로의 전개 과정은 '나'의 사고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나'는 D에서 인간의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⑤ E에는 D의 깨달음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새로 부화된 병아리를 뜻하는 ‘햇병아리’가 경험이 없는 사람인 ‘꽃내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면서 햇병아리는 꽃내기의 의미까지 갖게 되었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의미 사이의 유사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와 ‘의미 사이의 근접성으로 명칭이 변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의미(s_1)를 가리키는 한 명칭(n_1)이 있고 s_1 과 유사한 다른 의미(s_2)가 있다고 하자. s_2 의 명칭(n_2)이 없거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 또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n_1 이 s_2 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미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명칭이 변이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산의 중간쯤 되는 곳(s_2)을 의미하는 ‘중턱(n_2)’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 s_2 를 가리키기 위해 유사한 의미의 단어 ‘산허리(n_1)’를 사용할 수 있다. 산허리의 의미(s_1)와 s_2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그림]처럼 ‘산허리’가 s_2 를 가리키는 명칭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산허리는 기존의 중턱과 함께 s_2 를 가리키게 되어 산허리와 중턱은 의미 자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때 원래 표현하고자 한 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비유의 꼴이 되므로 은유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사이의 유사성에 의한 은유는 ‘안경다리’처럼 사람의 신체를 무생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노루오줌’처럼 동물의 명칭을 식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국물’처럼 구체어가 추상적 관념인 ‘이익’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의미 사이의 근접성에 의해 연상 작용이 심리적으로 발생할 때에도 한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변이된다. 이때 명칭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과 동일한데, 다만 두 의미(s_1, s_2)를 연결한 선이 유사성이 아니라 근접성을 나타낸 것이 다르다.

의미 사이의 근접성에 의한 명칭 변이는 ㉡ 공간적 관계, ㉢ 시간적 관계, ㉣ 인과적 관계로 구별할 수 있다. 예컨대 ‘세자’를 ‘동궁(東宮)’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자의 거처’가 ‘동궁’이라는 공간적 관계의 근접성 때문에 일어난 명칭의 변이이며, 가장 맛있는 ‘새우젓’을 ‘육젓’으로 부르는 것은 ‘육젓’이 ‘음력 유월’에 잡은 새우로 담근 것에서 유래한 변이이다. 그리고 ‘임금의 피난’을 ‘먼지를 덮어쓰다’라는 뜻의 ‘몽진(蒙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임금이 난을 피하면서 먼지를 덮어썼던 사건의 인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38.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음성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②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③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다.
- ④ 언어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 ⑤ 언어는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을 [그림]에 적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n(명칭)	n_1 : 햇병아리	n_2 : 꽃내기
s(의미)	s_1 : 새로 부화된 병아리	s_2 : 경험이 없는 사람

- ① n_1 과 n_2 는 유의 관계에 있다.
- ② n_1 이 s_2 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s_1 과 s_2 사이에는 공통의 의미 자질이 있다.
- ④ n_1 은 의미에 s_2 를 포함하면서 다의어가 된다.
- ⑤ n_1 이 s_1 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n_2 를 만들고 있다.

40. ㉡ ~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아침(←아침밥)을 먹어야 머리가 맑아진다.
㉢. 그는 시의원을 거쳐 <u>역의도</u> (←국회)에 진출했다.
㉣. 위험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u>몸이 떨린다</u> .(←두렵다)
㉡. 이 시는 <u>4.19</u>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 월드컵 개막식이 <u>상암</u>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 | | | | |
|---|------|------|------|
| | ㉡ | ㉢ | ㉣ |
| ① | ㄱ, ㄴ | ㄷ, ㄹ | ㄷ |
| ② | ㄴ, ㄷ | ㄱ, ㄷ | ㄹ |
| ③ | ㄴ, ㄹ | ㄱ, ㄷ | ㄷ |
| ④ | ㄴ, ㄹ | ㄷ | ㄱ, ㄷ |
| ⑤ | ㄷ | ㄴ, ㄷ | ㄱ, ㄹ |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들을 살 수 없는 것은 소득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은 주어진 금액 안에서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선택을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편의상 소비자가 X재와 Y재라는 두 상품만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구입하는 두 상품의 수량적인 구성을 상품조합이라고 한다. 다음 표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재와 Y재의 상품조합들을 나타낸 것이다.

상품 \ 상품조합	A	B	C	D	E
X재	1	2	3	4	5
Y재	12	8	5	3	2

위 표의 각 조합 A~E의 구성을 보면 소비자는 X재를 얻기 위해 Y재의 소비량을 줄여 동일한 만족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X재 소비를 1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시켜야 하는 Y재의 양을 한계대체율이라 한다. 위 표에서 한계대체율의 변화를 보면 소비자의 선택이 A→B→C→D→E로 이동해 감에 따라 X재를 얻기 위해 감소하는 Y재의 양이 같은 개수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4→3→2→1개씩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어떤 상품의 보유량이 많으면 그 상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소비자의 경향을 보여준다. 즉, Y재가 많을 때는 X재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Y재를 더 많이 내놓고, Y재가 적을 때는 X재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Y재를 적게 내놓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품 교환 방식으로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조합들을 가로축은 X재의 양을, 세로축은 Y재의 양을 표시하여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무차별곡선'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는 한 무차별곡선 상에서는 같은 만족을 느낀다. 그런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은 여러 개가 그려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상품에 대한 한 소비자의 여러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서로 다른 만족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소비가 많아질수록 만족수준이 높아지므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 중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에는 항상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한이 있다. 소득의 제한 안에서 편의상 X재와 Y재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연결해 놓은 선분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만족이 높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한 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소득의 변화와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 최적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41.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가격이 변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지점이 달라진다.
- ② 무차별곡선에는 상품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 ③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무차별곡선은 소득의 제한 안에서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상품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여러 개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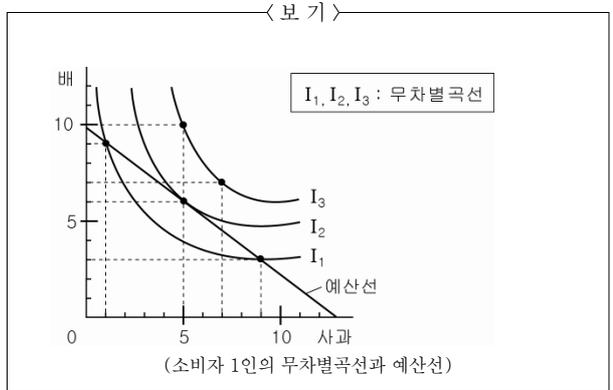
42.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X재가 불펜, Y재가 연필인 한 무차별곡선에서 소비자가 불펜 3개와 연필 8개를 살 때와 불펜 4개와 연필 5개를 살 때 같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자. 이때 불펜의 소비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면 한계대체율은 3이 된다. 또한 같은 무차별곡선 상에서 불펜의 소비가 4개에서 5개로 1단위 증가하면 한계대체율은 3보다 작아지게 된다.

- ① 불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불펜의 상대적인 중요도도 높아지겠군.
- ② 불펜과 연필을 살 때는 한계대체율이 가장 작을 때 만족도가 가장 크겠군.
- ③ 한계대체율이 3보다 크다면 불펜의 개수가 연필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④ 한계대체율이 작아지는 것은 연필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불펜과 연필로 조합된 무차별곡선 상에서 불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한계대체율은 증가하겠군.

4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래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과 5개와 배 6개를 사는 것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다.
- ② 사과 9개와 배 3개보다 사과 1개와 배 9개를 살 때 만족도가 크다.
- ③ 사과 5개와 배 10개를 사거나 사과 7개와 배 7개를 살 때 만족도는 같다.
- ④ 사과 5개와 배 6개를 사는 것보다 사과 7개와 배 7개를 살 때 만족도가 크다.
- ⑤ 사과 5개와 배 10개를 사는 것보다 사과 9개와 배 3개를 살 때 만족도가 작다.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장풍운의 셋째 부인 '유씨'는 천자의 조카로, 장풍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부인'에 대한 질투가 심하였다. 장풍운이 토번을 진압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유씨'는 계교로 '이 부인'을 모해하여 죽을 위험에 빠뜨린다. 천자는 '이 부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처형을 미루고 옥에 가둘 것을 명한다. 장풍운의 모친 '양 부인'과 둘째 부인 '왕 부인'은 옥에 갇힌 '이 부인'을 걱정한다.

'양 부인'이 먹을 것과 약물 등을 준비하여 옥중(獄中)으로 보내고, '왕 부인'과 더불어 의논하며 좌상상 풍운이 돌아오기를 고대했다. 여러 달이 지나매, '왕 부인'은 간장이 녹는 듯하여 봉한 ① 편지와 아이의 옷을 지어 시비 옥섬을 불러서 주며 말했다.

"옥중의 '이 부인'께 드리되,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옥섬이 받아 가지고 옥졸에게 인정(人情)을 쓰고, '이 부인'을 뵈기를 청하여 편지와 옷 보자기를 자란에게 주고 '왕 부인' 말씀은 전했다. '이 부인'이 정신을 차려 서간을 떼어 보니,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소첩 왕씨는 두어 자를 올리나이다. 조물주가 시기하고 귀신이 돕지를 얹아 변란이 규문(閨門)에 미쳐 부인의 빙옥 같은 절개에 천고에도 없을 누명을 씌우니, 이는 부인의 액운일 뿐 아니라 또 첩의 일이기도 한지라 어찌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천도(天道)가 비록 높으시나 살피심이 대수롭지 아니하시니, 승상이 곧 오시면 옹고 그름이 분간될 것입니다. 하니 바라건대 귀한 몸을 소중히 여기소서."

'이 부인'이 다 읽고 난 후 눈물이 물 흐르듯 하여 능히 말을 이루지 못하다가 심회를 진정하여 답서를 써서 보내었는데 그 ②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죄인 이씨는 삼가 답서를 올리나이다. 첩의 죄가 중하고 허물이 깊어 다섯 살에 자모(慈母)를 잃고 계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의지와 기개를 펴지 못하다가, 열여섯 살에 승상의 아내가 된 지 여섯 달 만에 부친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단원사 승당에서 천행으로 시어머니를 만나 서로 의지했고, 또 승상과 부인을 만나매 다시는 환란이 없을까 했습니다. 한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변고를 겪으니 천지일월(天地日月)만이 증명하실 바이지, 잘못이 없음을 다시 밝힐 길이 없어 대강 기록하나이다. 바라건대 부인은 첩을 생각지 말고, 다만 제 동생을 거두어 은혜를 베풀어주시면 지하에 가도 눈을 감을까 하나이다.”

‘왕 부인’이 다 읽은 후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다가 문득 한 계책을 생각해내고 경운을 불러 말했다.

“이제 공자의 누님이 꺾어야 할 환난이 목전에 있는지라, 승상께서 빨리 오시면 옳고 그름이 가려질 것이요. 생각건대 승상이 타시던 준마가 있으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서 승상을 모셔 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리라.”

경운이 이 말을 듣고 울며 물었다.

“부인의 말씀이 감사하나, 그 사이 누님이 아이를 낳게 되면 죽을 것이니 어찌해야 하리이까?”

“그 일은 내가 감당할 것이니, 공자는 체비를 차려서 떠나되 더디 오지 마시오!”

경운이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다.

차츰 좌승상이 행군한 지 여러 날 만에 하북(河北)에 이르러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물리치고 황성으로 향하고자 했다. 이날 밤 꿈에 금산사 부처가 장막에 와서 좌승상에게 말했다.

“부인의 생사가 급하니 빨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 없었다. 좌승상이 마음속으로 놀라 근심에 잠겼다.

문득 군사가 “경운 공자가 왔다.” 알리자, 좌승상이 크게 놀라서 바빠 불러들이라 했다. 경운이 들어와 아무 말도 못하고 기절하는지라 붙들어 구호하며 까닭을 물으니, 경운이 시간을 드리며 그간의 사정을 알렸다. 좌승상이 유씨의 소행으로 짐작하고 부원수에게 “뒤를 따르라.” 명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빠 경성으로 향하여 갔다.

차츰 ‘이 부인’이 옥동자를 낳으니, ‘왕 부인’이 기뻐하여 금은을 옥졸에게 주어 아이 낳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유씨가 이를 알고 부왕에게 남을 시켜 천자에게 아뢰게 하니, 천자가 ‘이 부인’을 처형하도록 윤허하였다. ‘왕 부인’이 소식을 듣고 ‘이 부인’과 함께 죽고자 했다. 법관이 삼로(三路)에서 ‘이 부인’을 수레에 올리니, ‘왕 부인’은 통곡했다. ‘이 부인’이 자란에게 아이를 맡기고 까무러치니, 옥졸이 차마 죽이지 못했다.

이때 좌승상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경성에 이르니, 꼭 오시(午時)였다. 멀리 바라보니, 삼로(三路)에서 옥졸이 수레를 옹위하고 가는데, 명패(名牌)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다.

“당일 오시에 음부(淫婦) 이경패를 참하라.”

좌승상이 말을 달려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헤치고 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가서 전후사연을 이르며 “참하는 시각을 늦추라.” 하고는, 바로 일궈하여 벌줄 것을 청했다. 천자가 크게 놀라셨지만 먼저 먼 길 갔다 온 것을 위로하시고, 다음으로 옥사(獄事)를 맡겼었다. 좌승상이 싸움에 나가 이겨 공을 세운 경위를 아뢰고는, 옥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금일 옥사는 저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오니 스스로 맡아서 처리

하게 해 주소서.”

천자가 이를 윤허하였다. 좌승상이 본가(本家)로 돌아와 ‘양 부인’을 뵈 후, 형구(形具)를 차려놓고 모든 시비를 죄주려 하니, 엄한 형벌 아래서 귀 같은 무리들이 어찌 죄를 감출 수가 있으랴. 불하일장(不下一杖), 곧 한 대도 때리기 전에 이미 난향 등이 잘못을 낱낱이 순순히 자백했다. 좌승상이 글을 올려 옥사를 뒤집고, 유씨를 그 수레에서 사형에 처하고, 난향 등을 능지처참한 후, ‘이 부인’을 구호했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張豊雲傳)」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장면의 전환을 활용하여 사건을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을 꿈을 통해 다른 인물에게 알리고 있다.

4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② ㉠과 달리 ㉡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상대방에 대한 위로가, ㉡에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드러나 있다.

46. 위 글의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	인물	주요 사건
옥	이 부인, 왕 부인	왕 부인은 옥심을 통해 모해사건의 피해자인 이 부인을 돕고 있다. … ①
하북	장풍운, 경운	장풍운은 경운이 전달한 서간으로 인해 모해사건의 가해자를 짐작하고 있다. … ②
삼로	장풍운, 이 부인	장풍운은 모해사건을 자신이 처리하기 위해 이 부인의 형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궁궐	장풍운, 천자	천자는 장풍운의 청을 들어 가족의 문제를 그가 직접 해결하도록 허락하였다. … ④
본가	장풍운, 유씨, 난향	장풍운은 모진 형벌을 가해 난향의 자백을 유도하여 유씨가 주도한 모해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 ⑤

47. 독자가 유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유씨가 별을 받는 것을 보니 () (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

- ① 결자해지(結者解之)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자업자득(自業自得) ④ 전화위복(轉禍爲福)
- ⑤ 토사구팽(兎死狗烹)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로토콜이란 통신 상황에서 송신자의 정보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수신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토콜이 실제 통신 상황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논리적 구조가 필요한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 기능을 일곱 단계로 분할한 OSI 7계층 모델이다. 이때 송신자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는 송신의 7단계부터 1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발송되고 수신자의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이 모델의 7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정보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최상위 단계인 7단계를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데, 송신자나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송신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것 등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6단계인 표현 계층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다른 컴퓨터와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문자열, 숫자 등의 컴퓨터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또한 송신 과정에서 정보를 압축하고 수신 과정에서 압축을 푸는 단계이기도 하다. 5단계인 세션 계층은 보내려는 정보에 검사점을 추가하여 오류 발생 시 재전송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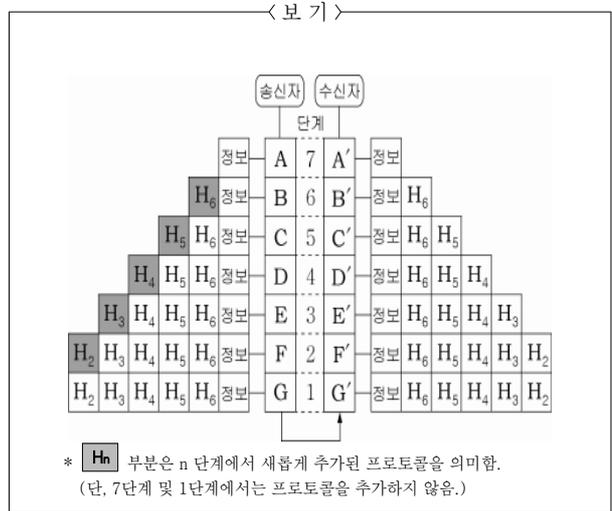
이와는 달리 4단계에서 1단계까지를 하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측면에서 기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4단계인 전송 계층은 정보를 ‘프레임(frame)’이라는 단위로 분할한 후 각 프레임에 수신자의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여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3단계인 네트워크 링크 계층에서는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수신자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기능을 한다. 경로가 설정되면 2단계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변환된 정보를 물리적으로 전송이 가능한 2진수 0과 1로 표시되는 비트(bit)로 변환하여 이를 물리 계층으로 보낸다.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은 정보를 보내기 위한 케이블의 종류나 전기 신호 등의 기계적 조건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발송한다.

이러한 정보의 송·수신 과정에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물리 계층을 제외하면 송신의 n계층과 수신자의 n계층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송신과 수신자의 n계층끼리는 해당 계층의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기능상 상호 작용해야 하므로 송신의 n계층마다 해당 계층의 프로토콜을 정보에 덧붙여 보내야 한다. 이처럼 각 계층에서 추가된 프로토콜들은 수신자의 해당 계층에서 해석된 후, 즉시 삭제되고 수신자의 7단계에서는 받고자 하는 정보만이 남게 된다.

48.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OSI 7계층 모델의 필요성
— 정보의 압축 과정을 중심으로
- ② OSI 7계층 모델의 장점과 단점
— 프로토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③ 프로토콜을 이용한 정보 전달
— OSI 7계층 모델의 단계를 중심으로
- ④ 프레임의 분할과 결합 과정
— OSI 7계층 모델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 ⑤ 통신의 과정에서 프로토콜의 전달 방식
— 전송 과정상 오류의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 <보기>는 OSI 7계층 모델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9번과 5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9. <보기>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 : 정보를 호환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한다.
- ② D : 정보를 프레임 단위로 분할한다.
- ③ E :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 ④ F :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비트 단위로 변환한다.
- ⑤ G : 정보에 검사점을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한다.

50. 위 글을 읽고 난 후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 정보를 압축했다면 B'에서는 압축이 풀리겠군.
- ② C의 정보 속에는 수신자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겠군.
- ③ D에서 추가된 H4는 D'에서 해석된 후 삭제되겠군.
- ④ E와 E'는 동일한 프로토콜로 연계되어 상호 작용하겠군.
- ⑤ D'~G'까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기능하는 단계로군.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